남원 특화작물 고랭지 파프리카 본격 수확

운봉읍 일대 올해 3600여t 생산 98억원 수익 기대
아삭아삭 씹히고 맛도 좋아 소비자 인기…日 수출도

남원을 대표하는 특화작물인 지리산 고랭지 파프리카의 수확이 시작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운봉읍 일대에서 겨울 추위를 이겨낸 지리산 고랭지 파프리카 수확이 본격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5kg 1상자에 2만원, 3kg은 1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재배가 시작된 지리산 파프리카는 올해 50농가가 30ha에서 3600여t을 생산해 9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일본에 30억원 어치 이상을 수출해 남원시 수출농산물 가운데 단일품목으로서는 1위 자리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지리산 고랭지 파프리카는 지리산 일대 고랭지에서 생산돼 아삭아삭한 식감과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또 저장기간도 길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시설원예 첨단시설 하우스에서 온·습도 조절과 창문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다.

특히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운봉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전량 공동선별하고 유통을 일원화해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농식품부의 전국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마련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름재배 주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운봉읍 파프리카 시설재배 농가가 크고 싱싱한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강진군, 공무직노조와 임금교섭 결렬

파업 가능성 높아져…이승옥 군수 "재교섭" 기대

강진군과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노조(이하 공무직노조)의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승옥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교섭 결렬을 알렸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해 2017년 12월에는 2014년부터 2016년 임금 인상분 4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2018년 1월부터 다시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양측이 호봉제로 전환하는데 동의했으나,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임금협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직노조(노조원155명)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노조의 요구는 전남 22개 시군 중 2위권 이상의 임금 수준으로 전남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 13일 임금교섭과 관련 임금교섭의 장기화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선의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재신청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로 사측이 먼저 이를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한편 이번 임금교섭 결렬 선언은 이후 조합원 투표와 광주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다면 파업을 결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옥 강진군수는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야해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 등의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고 재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좋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내장산 신록터널

초록으로 물든 내장산 단풍터널길을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오는 25일 내장산 경내에서는 MBC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 콘서트'가 진행된다. 〈정읍시 제공〉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
정읍시,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가 '2019년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는 최근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전북 도내 시·군 세무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14개 시·군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심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도 지방세 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상속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방현수 정읍시청 주무관은 오는 9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순창군은 전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동결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14.28%) 올랐다.

전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거리 운임(2㎞ 이상)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0원, 시간운임(15㎞/h 이하)은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0시~오전 4시)과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공차 구간 및 비포장 도로를 고려한 복합할증률은 기존 63%에서 60%로 변경 적용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익산시, '영유아 문화 공연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뮤지컬·인형극 무료 공연에 "신났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주관하는 영유아 문화 공연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동동동 문화놀이터'에서 주관하는 아동뮤지컬 공연 1편과 전북도 '시·군 영유아 순회 공연'의 일환인 영유아 인형극 2편 등 총 3편을 공모를 통해 확보했다.

이 공연들은 익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시는 이 공연들을 통해 영유아 문화감수성 향상과 예술적 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가 공모한 사업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문화적 혜택이 적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을 통해 인형극 극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인형극을 통한 편식지도와 미디어 이용 지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의 가정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영유아들을 위한 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군,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 7월 오픈

고창군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을 청사 내에 오는 7월 문을 연다.

군청 내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의 'I got everything'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파는 사회적 나눔을 행하며 즐거움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군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품질의 맛,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카페를 만들 예정이다.

군은 장애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카페 장소는 무상임대하며 참여자를 공개모집 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